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08년 10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10월 광공업 생산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2.3%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35.2%), 석유정제(5.5%)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반도체 및 부품(-13.6%), 영상음향통신(-5.1%), 식료품(-6.7%) 등을 중심으로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서비스업(8.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7.3%), 금융 및 보험업(3.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8.6%), 도매 및 소매업(-3.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2.7%) 부문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감소함.

○ 2008년 10월 소비, 투자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3.7%, 7.7% 감소

- 소비재 판매는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0.7%)에서 증가한 반면, 차량용 연료 등 비내구재(-5.1%)와 의복·직물 등 준내구재(-5.0%)에서 감소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든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이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격인 건설수주

는 건축부문의 수주부진으로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8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대비도 전월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9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보임.

◆ 2008년 3/4분기 경제성장률 3.8%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 3/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 소비와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3.8%를 기록함.
  - 특히 3/4분기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998년 1/4분기 9.6% 감소한 이래 최악을 기록함.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석유화학, 산업용 기계 등의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전기대비 0.3% 증가에 그침. 건설업은 기저효과로 전기대비 0.9% 증가, 서비스업은 부동산, 오락·문화 및 서비스업, 통신업 등이 감소로 전환한 데다 금융 및 보험업도 부진해 전기대비 0.2% 증가에 그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4/4	연간	1/4	2/4	3/4p	9월p	10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5.9	15.9	11.0	6.8	10.6	8.6	5.6	6.2	-2.4	(-2.3)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6.2	16.3	11.2	7.0	10.7	9.0	5.6	6.1	-2.9	(-2.6)
	출하	9.7	9.0	9.2	3.8	7.8	5.1	7.2	5.4	15.4	10.6	7.1	8.9	6.3	5.4	6.0	-2.4	(-2.6)
	수출	13.1	14.2	15.7	5.6	11.9	6.7	9.9	9.1	19.2	16.2	10.2	14.3	13.5	10.5	12.4	0.7	( 1.8)
	내수	7.1	4.9	3.8	2.2	4.5	4.1	4.9	3.0	12.7	6.8	4.9	5.3	1.7	1.7	1.3	-4.5	( 8.0)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7.2	8.6	6.8	6.4	6.4	4.6	2.7	3.3	1.0	(-0.5)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7.1	6.6	4.5	5.3	3.9	2.5	1.0	-1.8	-3.7	(-1.4)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0.7	7.0	9.2	8.6	-0.9	0.1	6.2	7.1	-7.7	(-11.0)
물가		2.0	2.3	2.5	2.2	2.2	2.1	2.4	2.3	3.0	3.3	2.5	3.8	4.8	5.5	4.8	4.5	( 0.6)

주 : p는 잠정치임. (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O),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 (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3) 물가는 10월, 1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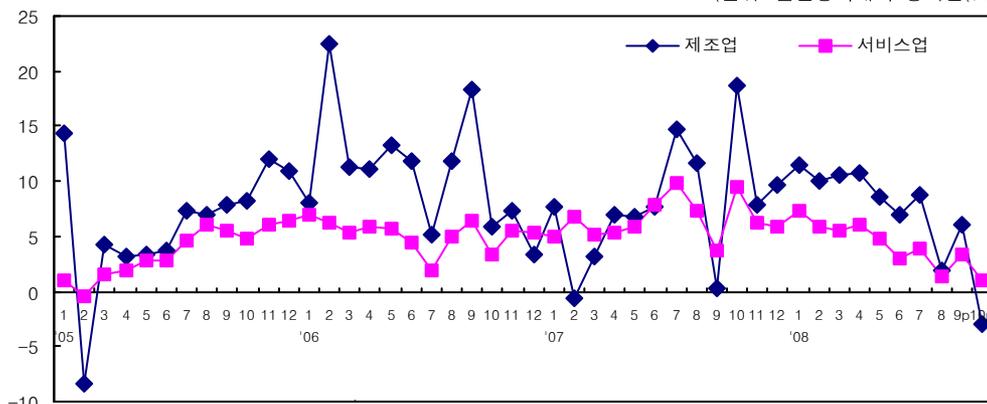
◆ 2008년 11월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둔화세(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2008년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안정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상승에 그쳐 3개월 연속 둔화세가 지속됨.

-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공업제품 전년동월대비 6.3%,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함.
- 2008년 11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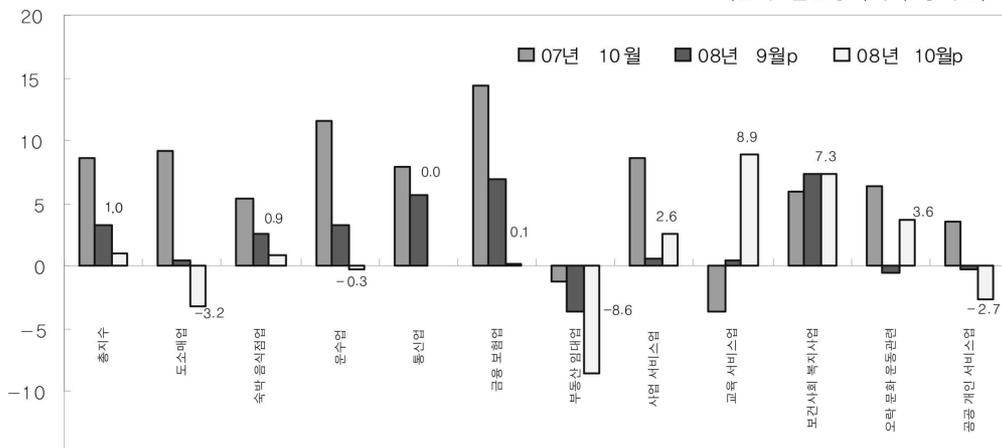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08. 11.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세 지속

- 2008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58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0천 명(0.4%)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80천 명으로 59천 명(0.4%)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302천 명으로 41천 명(0.4%) 증가함.
- 2008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6%)이 전년동기대비 0.6%p, 여성(50.7%)이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함(그림 3 참조).
- 2008년 10월 중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9.4%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하였음.
- 2008년 10월 중 취업자는 23,84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7천 명(0.4%)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79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6천 명(0.4%), 여성 취업자는 10,04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1천 명(0.4%)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08년 10월 중 실업자는 73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 명(0.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기대비 동일함.
  - 남성 실업자는 48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변동이 없음.
  - 실업률은 남성이 3.4%, 여성이 2.5%로 전년동기대비 동일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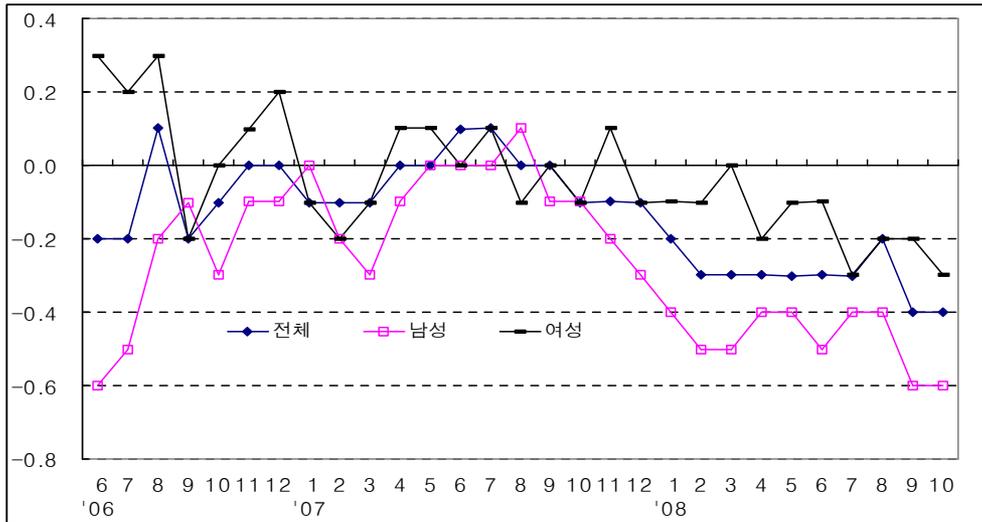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367 (1.1)	24,316 (1.0)	24,482 (0.9)	23,852 (0.7)	24,638 (0.6)	24,503 (0.6)	24,456 (0.5)	24,582 (0.4)
참가율	60.8	62.6	62.1	61.8	62.3	60.5	62.3	61.8	61.6	61.9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582 (1.2)	23,750 (1.2)	23,051 (0.9)	23,871 (0.7)	23,752 (0.6)	23,734 (0.5)	23,847 (0.4)
고용률	58.6	60.6	60.2	60.0	60.4	58.5	60.4	59.9	59.8	60.0
실업자	851	791	756	734	733	801	767	752	722	736
실업률	3.6	3.2	3.1	3.0	3.0	3.4	3.1	3.1	3.0	3.0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865 (1.0)	15,000 (1.3)	14,808 (1.3)	15,575 (1.8)	14,903 (1.7)	15,154 (1.9)	15,236 (2.1)	15,144 (2.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08년 10월 고용동향』, 2008. 11.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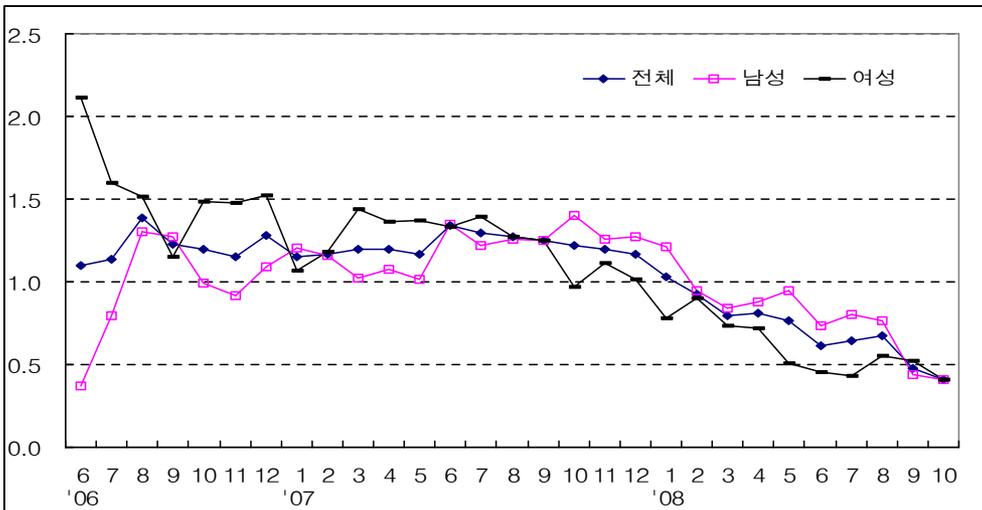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14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37천 명(2.3%)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11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1천 명(3.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03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6천 명(1.6%)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436천 명으로 131천 명(3.0%), 비통학 취업준비는 356천 명으로 26천 명(7.8%),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26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5천 명(4.6%) 증가함.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6천 명, 4.0%)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63천 명,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2천 명, -0.9%), 전기·운수·통신·금융업(-43천 명, -1.8%), 건설업(-38천 명, -2.0%), 농림어업(-17천 명, -0.9%)에서는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전 산업	22,841 ( 1.2)	23,698 ( 1.2)	23,610 ( 1.3)	23,582 ( 1.2)	23,750 ( 1.2)	23,051 ( 0.9)	23,871 ( 0.7)	23,752 ( 0.6)	23,734 ( 0.5)	23,847 ( 0.4)
농림어업	1,450 (-2.8)	1,900 (-2.7)	1,866 (-3.7)	1,690 (-3.8)	1,900 (-3.4)	1,388 (-4.3)	1,848 (-2.7)	1,831 (-1.8)	1,840 (-1.4)	1,883 (-0.9)
제조업	4,138 (-1.2)	4,126 (-1.3)	4,093 (-1.2)	4,120 (-0.9)	4,142 (-1.0)	4,114 (-0.6)	4,101 (-0.6)	4,055 (-0.9)	4,047 (-1.3)	4,079 (-1.5)
건설업	1,772 ( 2.7)	1,934 ( 1.6)	1,843 (-0.3)	1,853 (-0.5)	1,876 (-0.5)	1,754 (-1.0)	1,896 (-2.0)	1,809 (-1.8)	1,804 (-2.6)	1,838 (-2.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15 (-1.0)	5,722 (-0.2)	5,723 (-0.3)	5,682 (-0.4)	5,707 (-0.6)	5,673 (-0.7)	5,671 (-0.9)	5,626 (-1.0)	5,630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 4.3)	7,606 ( 4.8)	7,674 ( 5.2)	7,762 ( 5.0)	7,726 ( 5.0)	7,684 ( 4.4)	7,924 ( 4.2)	7,976 ( 3.9)	8,010 ( 4.0)	8,032 ( 4.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 2.8)	2,400 ( 3.3)	2,396 ( 2.5)	2,415 ( 1.8)	2,405 ( 2.5)	2,385 ( 0.9)	2,410 ( 0.4)	2,387 (-0.4)	2,385 (-0.5)	2,36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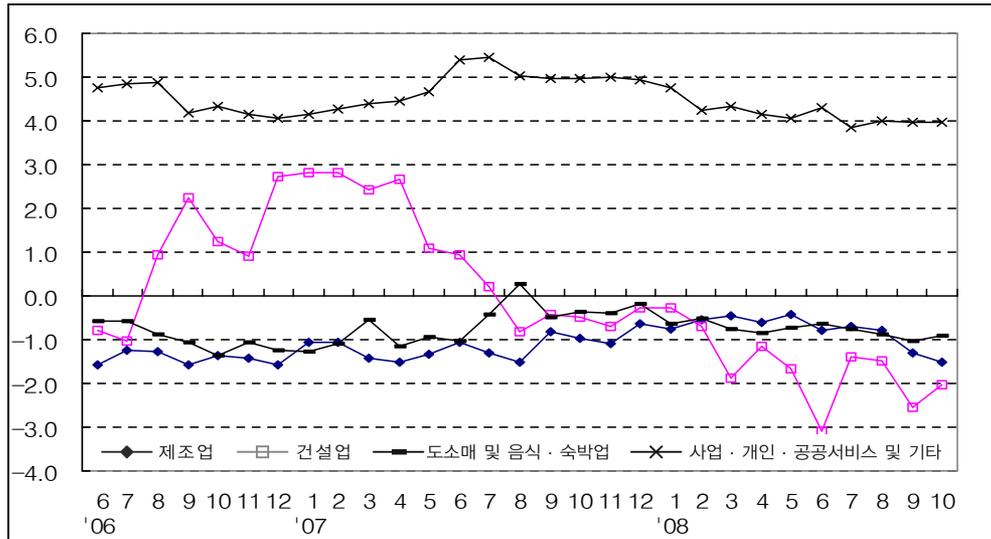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8년 10월 고용동향』, 2008. 11.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체	22,841 ( 1.2)	23,698 ( 1.2)	23,610 ( 1.3)	23,582 ( 1.2)	23,750 ( 1.2)	23,051 ( 0.9)	23,871 ( 0.7)	23,752 ( 0.6)	23,734 ( 0.5)	23,847 ( 0.4)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589 (-2.2)	7,426 (-1.8)	7,603 (-2.0)	7,097 (-1.4)	7,521 (-1.5)	7,522 (-0.9)	7,513 (-0.7)	7,533 (-0.9)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28 (-1.3)	6,035 (-1.4)	6,147 (-1.1)	5,816 (-1.3)	6,073 (-1.1)	6,052 (-1.2)	6,060 (-0.9)	6,036 (-1.8)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60 (-5.9)	1,391 (-3.4)	1,456 (-5.5)	1,281 (-1.8)	1,449 (-3.3)	1,470 ( 0.7)	1,454 ( 0.2)	1,497 ( 2.8)
임금근로자	15,642 ( 2.8)	16,061 ( 2.4)	16,022 ( 3.0)	16,156 ( 2.6)	16,147 ( 2.8)	15,954 ( 2.0)	16,350 ( 1.8)	16,229 ( 1.3)	16,221 ( 1.0)	16,314 ( 1.0)
상용근로자	8,404 ( 4.3)	8,533 ( 4.6)	8,753 ( 6.2)	8,790 ( 5.1)	8,825 ( 5.2)	8,839 ( 5.2)	8,981 ( 5.2)	9,101 ( 4.0)	9,142 ( 3.6)	9,138 ( 3.5)
임시근로자	5,163 ( 2.5)	5,237 ( 0.7)	5,133 (-0.3)	5,156 (-0.6)	5,119 (-0.2)	5,064 (-1.9)	5,141 (-1.8)	5,050 (-1.6)	5,015 (-1.7)	5,034 (-1.7)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135 (-1.5)	2,211 ( 1.0)	2,203 ( 0.8)	2,051 (-1.2)	2,227 (-2.8)	2,079 (-2.6)	2,064 (-3.2)	2,142 (-2.8)
36시간 미만	3,014 ( 6.4)	2,564 ( 1.7)	3,962 (23.7)	2,549 (-5.1)	2,493 ( 0.3)	2,770 (-8.1)	3,055 (19.1)	5,132 (29.5)	7,569 (186.4)	2,570 ( 3.1)
36시간 이상	19,384 ( 0.2)	20,906 ( 1.1)	19,227 (-2.4)	20,806 ( 2.2)	21,014 ( 1.3)	19,888 ( 2.6)	20,546 (-1.7)	18,139 (-5.7)	15,819 (-23.7)	21,042 ( 0.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8년 10월 고용동향』, 2008. 11.

◆ 임시·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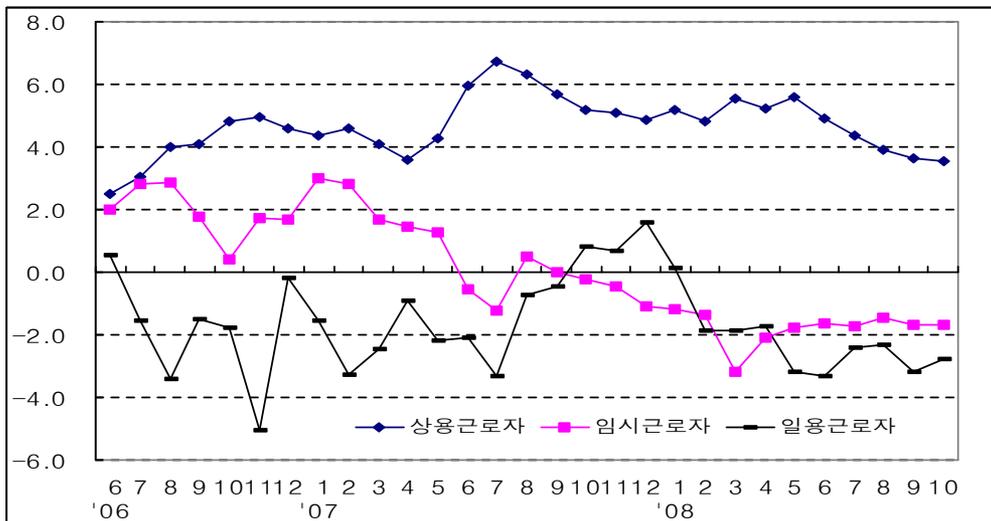
- 2008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533천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0천 명(-0.9%)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31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7천 명(1.0%)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138천 명으로 313천 명(3.5%)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34천 명으로 85천 명(-1.7%) 일용근로자는 2,142천 명으로 61천 명(-2.8%)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는 지속됨(그림 6 참조).
- 2008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57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7천 명(3.1%),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042천 명으로 28천 명(0.1%) 증가함.

◆ 20대, 30대, 40대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

- 2008년 10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4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소폭 감소함.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10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20대(6.7%, 0.2%p), 30대(3.3%, 0.3%p), 40대(2.0%, 0.1%p)에서 증가하였고, 50대(1.9%, -0.1%p)에서는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1.8%, -0.1%p)에서 감소하였고, 고졸(3.6%, 0.0%p), 대졸 이상(3.0%, 0.0%p)에서는 전년동기와 동일함.

○ 2008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736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02천 명으로 2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전 체	851(3.6)	791(3.2)	756(3.1)	734(3.0)	733(3.0)	801(3.4)	767(3.1)	752(3.1)	722(3.0)	736(3.0)
15~29세	346(7.6)	330(7.3)	322(7.1)	312(7.0)	290(6.5)	328(7.3)	327(7.4)	303(6.9)	263(6.1)	284(6.6)
30~39세	216(3.5)	203(3.3)	189(3.0)	183(2.9)	190(3.0)	193(3.1)	187(3.0)	193(3.1)	202(3.3)	207(3.3)
40~49세	151(2.3)	130(1.9)	132(2.0)	126(1.9)	127(1.9)	160(2.4)	138(2.1)	138(2.1)	135(2.0)	132(2.0)
50~59세	96(2.4)	95(2.2)	80(1.9)	78(1.8)	87(2.0)	83(2.0)	82(1.8)	91(2.1)	95(2.1)	88(1.9)
60세 이상	42(1.7)	33(1.2)	34(1.2)	35(1.3)	39(1.4)	38(1.6)	33(1.2)	27(1.0)	28(1.0)	25(0.9)
중졸 이하	150(2.8)	112(1.9)	105(1.9)	109(2.0)	111(1.9)	128(2.5)	120(2.2)	113(2.1)	106(1.9)	98(1.8)
고졸	426(4.2)	379(3.7)	378(3.7)	372(3.7)	360(3.6)	402(4.0)	368(3.7)	381(3.8)	359(3.6)	363(3.6)
대졸 이상	274(3.3)	300(3.5)	274(3.2)	253(2.9)	261(3.0)	271(3.1)	279(3.1)	258(2.9)	257(2.9)	275(3.0)
취업 무경험 실업자	40	40	44	40	32	44	49	39	28	33
취업 유경험 실업자	810	751	712	694	701	757	718	713	694	702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10월 고용동향』, 2008. 11.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임금, 근로시간, 가계수지 동향

◆ 2008년 3/4분기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2.6% 상승에 그쳐

○ 2008년 3/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72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6% 상승

- 상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 증가율은 3.0%, 정액급여 증가율은 5.9%인데 반하여 초과급여 증가율은 -4.2%, 특별급여 증가율은 -5.5%를 기록
- 임시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4.2% 하락한 880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특별급여를 비롯하여 임시근로자의 임금상승률 하락은 경기둔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 실질임금도 2.7% 하락

- 2008년 3/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6% 증가한데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5.5% 증가를 기록하여 실질임금은 2.7% 하락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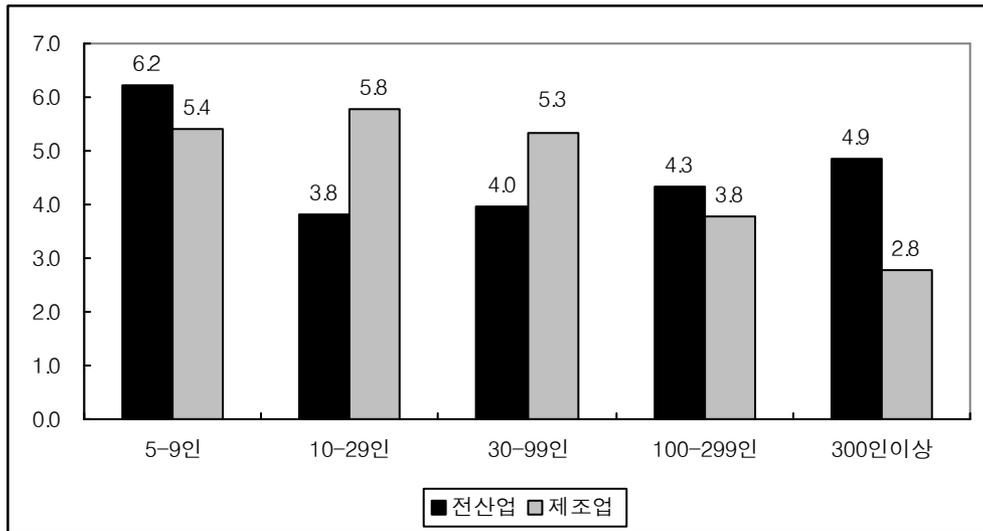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2,510 (-)	2,410 (-)	2,604 (-)	2,719 (-)	2,662 (6.1)	2,563 ( 6.4)	2,672 ( 2.6)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661 (-)	2,555 (-)	2,761 (-)	2,888 (-)	2,811 (5.7)	2,746 ( 7.5)	2,842 ( 3.0)
	정액급여	1,995 (-)	1,995 (-)	2,028 (-)	2,086 (-)	2,103 (5.4)	2,171 ( 8.8)	2,148 ( 5.9)
	초과급여	156 (-)	167 (-)	165 (-)	172 (-)	168 (8.2)	169 ( 1.7)	158 (-4.2)
	특별급여	510 (-)	394 (-)	568 (-)	630 (-)	540 (5.8)	406 ( 3.1)	536 (-5.5)
임시근로자 임금총액	870 (-)	911 (-)	918 (-)	918 (-)	887 (1.9)	816 (-10.4)	880 (-4.2)	
실질임금(전체 근로자)	2,425 (-)	2,304 (-)	2,472 (-)	2,565 (-)	2,478 (2.2)	2,339 ( 1.5)	2,405 (-2.7)	
소비자물가지수	103.5 (2.1)	104.6 (2.4)	105.3 (2.3)	106.0 (3.3)	107.4 (3.8)	109.6 ( 4.8)	111.1 ( 5.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7〕 규모별 임금상승률(2008년 3/4분기)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전산업에서는 5~9인, 제조업에서는 10~29인의 임금상승률 가장 높아
  - 2008년 3/4분기 전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6.2%, 10~29인 3.8%, 30~99인 4.0%, 100~299인 4.3%, 300인 이상 4.9%를 나타냄.
  - 제조업에서는 10~2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300인 이상 규모가 2.8%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강승복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지속

- 2008년 11월 26일 현재 노사분규 동향을 살펴보면,
  - 분규발생건수는 107건으로 전년동기(106건)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근로손실일수는 796,139일로 전년동기(495,241일)대비 60.8% 늘어나 그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 개소, 일)

	2007. 11. 26	2008. 11. 26
노사분규 발생건수(개소)	106	107
근로손실일수(일)	495,241	796,139

주 :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 노동부.

◆ 비정규직법 개정 둘러싼 노-정간 논란 심화

- 노동부가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노동부는 지난 11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7월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본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또한 노동부는 구체적인 법개정안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사용기간을 제한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취지와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할 경우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밝힘.
  - 민주노총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좁은 길마저도 봉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활짝 열었다”며 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입법, 기획재정부 및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함.
  -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전국비정규노조연대 등이 참가하는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도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개악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현행 비정규직법 자체의 폐기를 주장함.
- 한편, 양대노총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에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한국노총은 11월 25일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전임자 임금·복수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논의함.
  - 민주노총은 11월 13일 민주노동당과 비정규직법 관련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11월 28일에는 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현안에 대해 상시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 민주당은 지난 11월 11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현행 ‘근로자’에서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을 강제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즉시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음.

#### ◆ 노동위원회, 외주업체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 지난 10월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대병원의 시설용역업체인 성원개발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 수준 결정서를 송달함.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핵심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성원개발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 수준 결정서에 따르면, 이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업무의 운영 유지율은 각각 평시 대비 60%이며, 필요인원은 전체 91명의 직원 중 68% 수준인 62명임.
-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11월 4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님에도 필수공익사업 중 외주화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며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 주변부 업무로 규정하여 외주화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한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또한 조합원 29명이 본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에도 대체투입을 포함하여 평상시 인력운영 수준의 85%인 77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함.

○ 한편, 노동위원회의 업무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성 논란도 일고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만든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신청 당사자가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각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업무매뉴얼 상으로는 사업종류가 서비스업인 성원개발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이는 서울지방노동위

원회의 이번 결정이 자체 업무매뉴얼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함.

- 지난 9월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만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외주업체도 체결해야 한다며 업무매뉴얼의 변경을 권고한 바 있음.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노동부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현재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대상 사업장은 총 244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외주업체 중 사용자측이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달 현재 총 19개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하지만 외주업체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운영·유지 수준이 결정된 것은 이번 성원 개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향후 필수유지업무 결정대상 사업장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이랜드일반노조 파업 종결

○ 지난 11월 13일 이랜드일반노조와 홉플러스테스코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과 노사화합선언식을 개최함으로써 500여일 이상 진행된 국내 최장기파업인 이랜드일반노조의 파업이 종결됨.

- 노사는 ▲1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간주 ▲향후 외주화 금지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일 적용 ▲해고자 28명 중 16명 복직 ▲민·형사상 소송의 상호 취하 등에 합의함.

○ 특히 노조는 2009~2010년 임금협상을 사측에 위임하고, 2010년까지 3년간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또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2명이 자진 퇴사하고 다른 이랜드그룹 계열사와 합쳐져 있던 노조를 분리시키는 데에 합의함.
- 한편,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중단하고 징계자 61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함. 또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현재 재판 중인 형사소송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함. 다만,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은 제외됨.

○ 이번 협상과정에서 노조 지도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퇴사한 것을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향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전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대표적인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이었던 만큼 이랜드일반노조의 파업 종결이 향후

코스콤·기룡전자·KTX승무원·강남성모병원 등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업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 금속 노사, 노사공동위원회 가동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11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에 잠정합의된 산별 중앙교섭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2008년 산별 중앙교섭에서 합의된 사안들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사업의 일환임.
  - 노사공동위원회는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여 노사 각 3인 이상 참가로 회의가 성립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또한 노사공동위원회 산하에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소위원회 ▲노사공동 소위원회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공동 소위원회를 두고, 각 소위원회는 격주 1회 회의를 갖기로 함.
  -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소위원회와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를 위한 소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연구조사 및 토론을 거쳐 2009년 1월에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2월에 최종정리 및 의제를 조정하기로 결정함.
- 금속 노사는 지난 7월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10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율 88.94%, 찬성률 79.14%), 11월 5일 조인식을 갖고 산별 중앙교섭을 마무리함.

#### ◆ 노동위원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첫 차별시정 명령

-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이 나옴.
  - 그 동안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몇 차례 있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도장공정 사내도급업체인 남명기업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남명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명령을 결정, 11월 24일 결정서를 발송함.
  - 결정서에 따르면, “남명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동일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급 및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평균 약 66.64%에 상당하는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남명기업으로 하여금 임금 지급, 복리후생 지급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할 것을 명령함.

- 또한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각 공정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 업무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며 남명기업과 현대자동차의 업무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힘.
- 비교대상자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적시함으로써 업무를 중심으로 한 차별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나름의 성과는 있지만 부족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금속노조는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을 당해왔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함.
-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원·하청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함.
- 하지만 차별시정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아닌 남명기업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판결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즉, 불법파견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합법파견에 적용하는 사용자 책임규정(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이행의무자가 됨)을 적용한 것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번 결정은 정규직을 차별시정 비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업무공정의 연속성을 불법파견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 노동부,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 발표

○ 노동부는 11월 20일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발표

- 이번 대책은 11월 20일 개최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된 「동절기 서

민생활안정대책」에 따른 것임.

- 노동부는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최대 3/4까지 지원하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KLI**

〈표 7〉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조조정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조정 대신 휴업 및 휴직 권장</li> <li>■ 기업 경영난이 사전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지원</li> </ul>
실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실직근로자에게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 지원</li> <li>■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내년 지원예산 확대</li> </ul>
청년,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천 명 추가 모집 내년에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규 시행</li> <li>■ 건설근로자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2/3를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li> <li>■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8천 명 추가 실시(내년에는 사업규모 확대)</li> </ul>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 확대</li> <li>■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단기 고급훈련 과정인 JUMP사업 신설</li> <li>■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li> </ul>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임금체불해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기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li> <li>■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월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 지원</li> <li>■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체당금 적극 지원(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li> </ul>
산재 비상대응체제 구축, 폭설 피해사업장 복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위험 건설현장 900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조치 이행 점검</li> <li>■ 설 연휴기간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전화 운영(1588-3088)</li> <li>■ 폭설 피해시 복구비 융자금 지원,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유예</li> <li>■ 폭설 등 피해복구시 붕괴, 전도 등 2차 재해예방 기술지원</li> </ul>

자료: 노동부,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2008. 11. 20.

(강병식 노사관계연구실 전문위원)